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악산비누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장을 돌아보던 날이 엇그제같은데 불과 몇달사이엔 규모가 대단히 큰 현대적인 공장이 멋들어지게 완공되었다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악산비누공장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과학적인 기술공정설계에 기초하여 건축면적과 생산공간을 조성하고 설비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을뿐만 아니라 공장안팎을 흠잡을데없이 꾸려놓았는데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었다.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여러 가지 물비누포장용기를 팡팡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사출성형기들은 물론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분석검증하는 첨단설비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았다고 기뻐하시었다.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샴푸, 린스, 그릇세척제, 가루비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이 그득히 쌓여있



다고 하시면서 불수록 흐뭇하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악산비누공장에서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년차별로 늘이며 그 질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한 문제, 제품의 상표들을 더 세련시킬데 대한 문제,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비누생산용원료와 향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악산비누공장이 룡악산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정말 회한하게 건설되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물비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교시를 여러차례나 주시었는데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물비

누와 세척제를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창건기념일까지 공장건설을 끝낼데 대한 전투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룡악산비누공장 건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순간의 침체와 담보도 모르는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의 숨결,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악산비누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특수작전대대의 병실, 교양실, 식당, 종합훈련관, 수영훈련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침실, 세목장, 리발실들을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손색없이 꾸렸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본보기가 될수 있다고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양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적후투쟁을 해야 하는 전투원들은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사조들로 역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식당도 잘 꾸렸으며 조리대에 음식감들도 가득 차려놓았는데 불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전투원들을 잘 먹여야 훈련강도를 높일수 있다고, 고

기, 닭알, 물고기를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급식규정량대로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는것과 함께 구미에 맞게 여러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체육시설들도 전문체육단 못지 않게 훌륭히 꾸렸다고 하시면서 병영을 생활구역, 훈련장구역, 보장구역의 계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하였는데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주변환경정리도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육체훈련실, 경기홀, 무선통신상학실, 컴퓨터상학실, 지형학상학실, 적군상학실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훈련관과 수영훈련관을 전투원들이 유사시 적구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야외종합훈련장에서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장애물극복훈련 및 격술종합훈련, 사격훈련, 초저공강하훈련, 직승기바줄강하훈련,

습격훈련을 지도하시었다.

청와대와 피퇴정부, 군부요직에 틀고 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있는 인간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것을 기본전투임무로 하고있는 용맹한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번개같이 몸을 날리면서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정확하고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자기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투원들이 펄펄 난다고, 무쇠주먹, 무쇠덩이라고, 권총이면 권총, 자동보총이면 자동보총 쏘면 쏘대로 목표를 명중시키는데 총알에 눈이 달린것만 같다고, 모두가 일당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는 최고사령관이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위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대대를 당원부대, 군관부대, 대학생부대로 만

못한 모든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할데 대한 문제, 훈련지휘관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문제, 모든 전투원들을 정찰, 침투, 습격, 파괴 등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하는 만능병사, 다병종화된 싸움군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등 특수작전대대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적의 심장부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등허리를 분질러놓아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이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쌓인 성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한 손을 저어 답례하시었다.

본사기자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는 현명한 령도

혹심한 자연재해를 당한 북변 땅이 천지개벽되고있다.

참혹한 피해의 흔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공공건물들과 새집들이 번듯하게 일떠서고 있다.

빨간색, 파란색의 지붕을 얹은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자태를 드러내고 거리와 마을 주변들이 자기의 체모를 갖추어 사회주의선경마을의 탄생을 예고하고있는것이다.

누구도 것처럼 엄청난 피해가 분분초초가 다르게 가서지게 될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이 놀라운 속도, 이 거대한 힘은 바로 절세위인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안아온 기적이고 성과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피해지역인민들이 재난과 불행에 하루빨리 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려명거리건설력량을 비롯한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할데 대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시어 피해지구는 하루

가 다르게 회한하게 변모되어 가고있다.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는 그이께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주신데 이어 한지에서 고생할 인민들의 정상을 넘려하시어 많은 량의 식료품들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거둬들여 보내시었다.

억만금을 쏟아부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재해지역 인민들의 불행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는 그이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에 가슴을 적시며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새 살림집, 새 마을들을 련이어 완공하고있다.

무산군에 달려간 건설자들은 벌써 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을 완공한 기세로 수천세대의 살림집건설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내밀고있으며 공공건물건

설도 힘있게 벌려 팔조공크리트치기실적은 83%, 벽체외부미장실적은 70%계선을 돌파하였다. 연사군에서도 총공사량의 90%계선을 돌파하였으며 경흥군에서도 군적인 살림집건설을 결속하였다. 전국각지의 인민들도 피해지역인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물심양면으로 돕고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자리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건설자들과 인민들의 기세는 북변땅에 수놓아지는 사랑의 새 전설로 하여 더욱 충천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밖에도 덮쳐든 자연재해로 부모와 보금자리를 잃은 학생소년들의 마음속아픔과 눈물을 말끔히 가셔주시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밝은

눈동자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부터 복구하도록 하시고 교복과 학용품들을 보내주시는데 이어 야영의 길을 열어주신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감동된 피해지역인민들과 건설자들은 하루빨리 피해복구를 끝낼 열의에 넘쳐 건설속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큰물, 가뭄, 지진, 화산 등과 같은 자연적인 이상기후현상으로 많은 인적, 물질손실을 입고있다. 해당 나라들에서는 국가적인 대책으로 피해복구도 하고 또 재난방지대책도 세우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처럼 뜻밖의 재해를 당한 인민들을 위하여 국가적인 관심속에 모든 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되어 복구전투를 한 레는 일찌기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지난해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라선땅에 들이닥친 큰물피

해를 가시도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령도의 손길을 잊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최고중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를 중요제의로 먼저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하시었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신데 이어 한지에서 고생할 인민들의 정상을 넘려하시어 많은 량의 물고기와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에 필

요한 물자들도 거둬 보내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거듭 부어주시였었다. 그러시고도 하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피해복구현지를 찾으시고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고 하시며 피해복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파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자리잡고있으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불타는 념원이 높뛰고있다. 그이의 이런 숭고한 인민관이 그대로 북부피해지구에 달려온 건설자들의 정신력의 원천이 되고 기적과 혁신의 자양분이 되어 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으며 머지않아 새집들이하는 피해지역주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온 나라가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봉—》하는 기적소리와 함께 렬차가 역흥에 들어섰다. 북부피해복구지역에 대한 취재차로 역구내로 나오니 사람들이 피해지역인민들에게 보낼 이불장이며 옷장, 침대 등을 기차에 옮겨싣고있었다. 정성들여 포장한 화물들에는 《함북도북부피해지구 지원물자》라고 쓰여져있었다.

완공된 살림집들에 놓게 될 가구들이라며 정히 다루는 사람들, 이런 멋진 가구를 놓고 기뻐할 피해지역인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신문에서 본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완공소식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피해지역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완공된 살림집들을 바라보며 환호를 올리는 건설자들, 그런가하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지역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들은 인민중생,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북반은 삶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 모습은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시며 나라의 인적, 물질, 기술적 잠재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최단기간에 혹심한 피해후과를 가시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안아온 감동깊은

웃음소리와 한숨소리

화곡인것이다. 려명거리완공의 환희보다도 재해지역인민들의 새집들이소식이 몇천배나 더 귀중하다고 하시며 200일전투의 주라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세상에 없는 복구기적을 창조하여 북변땅 인민들에게 반드시 더 큰 행복, 누구나 부러워하는 새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인민의 아버이를 모시어 해방후 기상관측이래 가장 큰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에서 세상에 없는 전화위복의 복구기적이 창조되고 재난을 당한 인민들의 얼굴에서는 자그마한 불행의 그늘도 찾아볼수 없는 것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느라니 한지 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 재난을 당한 인민들의 불행한 모습이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안겨와 가슴이 아팠다.

《경주지진, 거기에 (정부는 없었다.)

얼마전 남조선의 경주에서 강한 지진과 수백여차의 여진이 발생하였는데 당국의 《무대응》, 《무책임》으로 하여 인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전역을 휩쓴 메르스사태때에도 기업들의 경영손실을 우려하여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을 공개하지 않아 술한 사람들이 추가로 병에 감염되는 등 당국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였다.

침몰하는 《세월》호안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피라게 부르짖을 때에도 《가만있으라.》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구조를 하는듯 한 흉내만 내어 충분히 살릴수 있는 아이들도 다 죽이는 곳도 악정이 실시되는 남조선이였다.

자연재해보다 더욱 무서운 반인민적인 정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불행과 탄식의 눈물속에 살아가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엄혹한 재난속에서도 인민들이 불행이란 말조차 모르고 행복에 겨워 울고 기쁨에 넘쳐 마음껏 웃고있는것이다.

피해지역인민들의 웃음넘친 모습, 진정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아니겠는가.

인민이 터치는 걱정과 환희의 만세소리인양 출발을 알리는 렬차의 기적소리가 울리였다. 날에날마다 꽃피어나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들을 세상에 소리높이 울리며 북부피해복구전선을 향해 질풍같이 달려갔다.

본사기자 강류성

맛 좋은 천연샘, 인민들에게

사람에게서 체중의 60~70%를 차지하는 물은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구성 물질이다. 공기와 물만 있으면 산다는 말이 무리가 가지 않는 이유이다. 체내에서의 모든 생리활동(영양물질을 소화흡수하고 물질대사과정과 몸의 온도조절 등 인체활동)을 물이 돕는다. 물을 떠나서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수》라는 말도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흔하디흔한 물도 수질이 각각이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인체에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어야 한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로 인한 생활환경적 및 의학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건강증진과 노동능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사회활동의 한 분야를 물위생이라고 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물질문화적욕구가 향상됨에 따라 맛 좋고 수질이 좋은 물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높다.

갈림길 1, 2동, 칠골 1, 2, 3동, 축진 1, 2동을 비롯하여 평양시 만경대구역 주민세대들에서 통약산샘물을 음료수로 리용하고있는것은 그 한 실례이다. 그 주변은 물론 평양 시내 상점이나 매대들에서 구매자가 많은 상품의 하나가 통약산샘물이다.

통약산샘물은 예로부터 경치 수려하고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통약산지구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

2007년부터 통약산샘물공장에서 생산된 샘물을 마시고있는 그곳 주민들은 소화장애치료와 스트레스해소를 비롯하여 인체의 건강과 영양관리에 아주 좋다고 하고있다. 그 샘물의 수질분석표만 봐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샘물들에는 없는 셀렌과 불소가 리상적으로 함유되어있기때문에 음료수로 뿐아니라 질병치료에도 효능이 높은것으로 알려져있는것이다.

인민들의 생명건강과 장수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질이 좋고 샘원천이 풍부한 그 일대에 샘물공장을 세우도록 하시고 다섯해전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손수 그 맛까지 보신 통약산샘물이다. 억만금이 들더라도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물을 마시게 하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며 공장건설을 맡기하시고 수송과 용기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과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샘물이다. 《통약산샘물공장》이라는 이름도 그이께서 맡아주신것이다.

마를줄 모르는 샘이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쉽없이 생산되는 통약산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공화국에 사는 어디가나 흔한것이 물이지만 그 물도 더 맛 좋고 더

맛 좋은 물을 가려서 음료수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용수로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9월 통약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 질 좋은 샘물을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자동화, 흐름선화, 무인화된 생산공정을 거쳐 각종 용기에 샘물이 담기는것을 보시며 생산정형과 위생안전성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앞으

로 생산정상화와 생산된 제품수송에서 나서는 문제, 유리병용기의 색깔과 형태를 표준화, 다양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 공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지심깊이의 샘줄기가 그대로 묻혀있게 하거나 땅우로湧출되는 샘이 강이나 바다로 그냥

흐르게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가당도록 하시려는 그의 인민사랑의 로고와 심혈이 어린 가르침이였다.

이 땅의 더 많은 천연샘물을 인민들에게.

하기에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에 수질이 좋은 천연샘물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각 지방들에서도 샘물생산공장들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화강암에서湧출된 칼슘, 칼리움을 비롯한 광물질이 들어있고 물의 회합도가 낮아 물

맛이 좋고 건강과 장수에 효과가 있고 심장부담과 소화장애해소, 원기회복에 유용한 마식령샘물도 바로 원수님의 은정어린 보살핌에 의하여 인민생활과 건강증진에 리용되게 되었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의 인민중중,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깊은 관심속에 오래전부터 맛이 좋아 해방전 일제가 술공장을 차리고 물자원을 약탈한 마식령산줄기의 대화봉샘물도 오늘 인민들을 위하여 대량생산되고있는것이다.

—샘물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누구나 마시는 대중적인 음료수로 생산되어 인민들에게 차려지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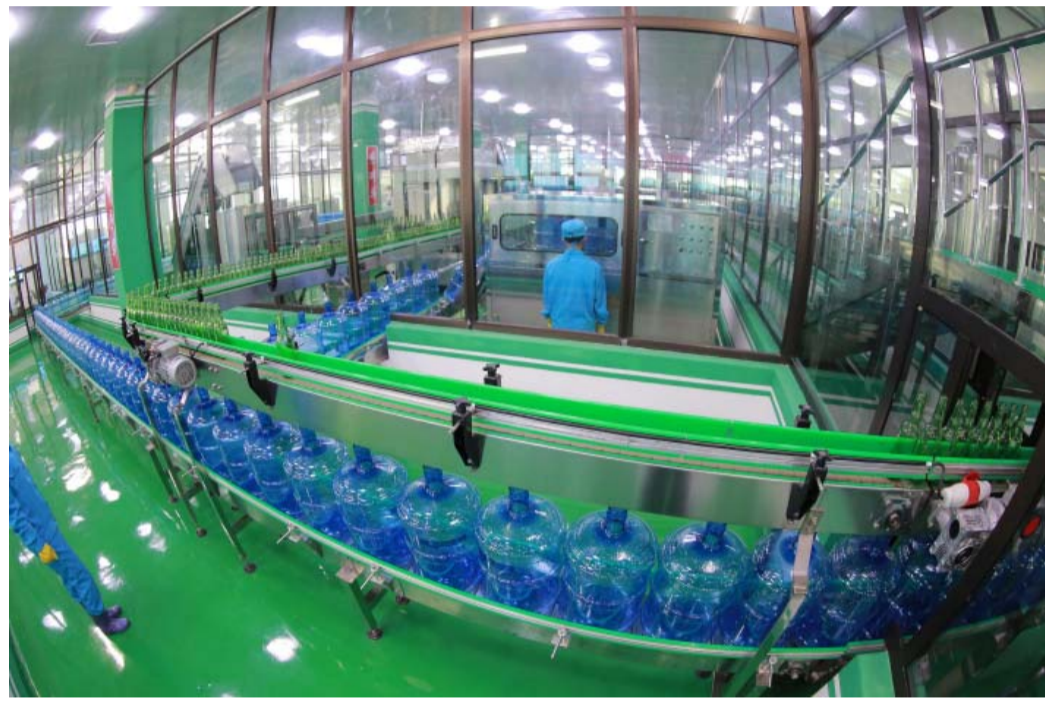
통약산샘물공장을 돌아본 외국인들의 소감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물자원고갈로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생존위협을 받고있다

12억에 달하는 인구가 물부족을 겪고있으며 80여개 나라에서 물자원이 부족하고 20억의 인구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음료수를 리용하고있다는 평가자료가 있고 물은 원유보다 더 귀중한 자원이라고 분석한 자료도 있다. 오늘의 세계는 현 세기 인류에게서 최대의 도전은 물위기라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물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다. 곳곳에서 생산되는 맑고 깨끗한 천연샘물의 덕까지 크게 보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이 자란다



2016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여자축구선수들이 1위를 쟁취했다는 기쁜 소식에 접한 우리는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을 키워내고있는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았다.

푸른 주단을 런상케 하는 인공잔디, 자연잔디를 깎 축구훈련장들을 갖춘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우리와 만난 김철웅부교장은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이렇듯 세계적인 국제축구학교가 훌륭히 일떠설 수 있는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은정이 깃들어있다고 말해주었다.

평양국제축구학교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형성안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학교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

이곳 학교에서는 국가대표선수 후비양성기지로서의 사명에 맞게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구명수들처럼 한가지이상의 특기동작들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에도 힘을 넣고있었다.

이밖에도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다양한 축구교류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지난 시기 평양국제축구학교의 축구선수들은 아시아축구연맹 14살미만 소년축구경기과 제2차 아리스포스컵 15살미만 국제초청경기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나와 머지않아 세계축구무대를 주름잡으며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쟁쟁한 축구선수들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류현철

웃음과 랑만이 넘쳐나는 미로

풍치아름다운 룡라인민유원지에 미로가 새로 꾸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진 우리는 그곳을 찾았다. 유원지의 무성한 나무가사이를 재롱스럽게 오가는 깜찍한 청서머 갖가지 유희시설들을 타고 탄성을 올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것도 즐거웠지만 새로 꾸려진 미로에서 연방 울려나오는 웃음소리에 끌려 그곳에 이르니 서너명의 사람들이 입구에 서있었다.

《출구를 찾기가 간단치 않구만요. 입구로 도 나갈수 없습니까?》

《입구로 들어가 꼭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 안내원을 불러줄레니 출구를 찾아 나가보세요.》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김미향관리원이 손님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세번째나 되돌아나와 입구로 나갈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고있으며 웃었다. 출구를 찾지 못해 진땀을 빼는 그들을 바라보느라니 절로 웃음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릇 한번 빠져들면 길을 헛갈려 좀처럼 나오기 힘든것이 미로이다. 이곳에 꾸려진 미로는 생물타리로 둘러싸인 원안에 여러 갈래의 복잡한 길을 만들어놓고 입구로 들어가 반대쪽의 출구를 찾아나가게 되어있었다. 총연장길이 550m인 미로유희시설에 2개의 열림통로와 3개의 미궁, 9개의 막힘구간이 있어 웬만한 사람들은 출구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겨우 출구로 빠져나와

《진땀을 뺐다.》느니, 《출구를 찾느라 돌고돌았더니 머리가 멍하다.》느니 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하소연》을 듣고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명의 대학생들이 입구에 들어섰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땀을 뺐구나 생각하며 우리는 김미향관리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운영을 시작한지 20일도 못되는 사이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는것, 휴식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수는 수천명에 달한다는것이였다. 그들중에는 길을 찾겠다고 쌍안경을 들고온 로인이 있는가 하면 미궁에 빠져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할가봐 더러 겁이나 《사람 살려주세요.》라며 울먹이는 처녀애들도 있다는 말에 우리도 한바탕 웃었다.

관리원과 이야기를 나눈지 10분도 되나마는데 방금전에 들어갔던 대학생들이 입구로 나오는것이 아닌가. 이들도 출구를 찾지 못한 모양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출구를 찾아 나갔다가 다시 입구로 돌아오는 길이라는것이였다. 역시 대학생들이 달랐다.

관리원은 갈래가 복잡한 미로에서 출구를 빨리 찾는 사람들은 역시 대학생들이라며 수학적계산과 물리적리치를 따져가며 길을 쉽게 찾는것 같다고, 미로는 사람들에게 관찰력과 지능을 계발시켜주고 감수성을 키워준다고 말하였다.

호기심을 안고 우리도 미로에 들어섰다. 사람키가봐 더러 겁이나 《사람 살려주세요.》라며 울먹이는 처녀애들도 있다는 말에 우리도 한바탕 웃었다.



《출구를 찾기가 간단치 않구만요. 입구로 도 나갈수 없습니까?》

《입구로 들어가 꼭 출구로 나가야 합니다. 안내원을 불러줄레니 출구를 찾아 나가보세요.》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김미향관리원이 손님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 세번째나 되돌아나와 입구로 나갈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고있으며 웃었다. 출구를 찾지 못해 진땀을 빼는 그들을 바라보느라니 절로 웃음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릇 한번 빠져들면 길을 헛갈려 좀처럼 나오기 힘든것이 미로이다.

이곳에 꾸려진 미로는 생물타리로 둘러싸인 원안에 여러 갈래의 복잡한 길을 만들어놓고 입구로 들어가 반대쪽의 출구를 찾아나가게 되어있었다. 총연장길이 550m인 미로유희시설에 2개의 열림통로와 3개의 미궁, 9개의 막힘구간이 있어 웬만한 사람들은 출구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고 한다.

겨우 출구로 빠져나와

으면 미궁에 빠져 헤매이기 쉬웠다. 미로안에서 길을 찾느라 오가다가 여러번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제힘으로 출구를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출구로 나오니 미로안에서 길을 헛갈려 서로 찾고 부르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참으로 즐거운 웃음과 랑만속에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미로였다.

어둠이 깃들어도 바닷등, 조명등들로 환한 미로에서 긴장감에 마음을 조이기도 하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느라니 언제나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가슴 후덥게 안겨와 선듯 걸음을 뻗수 없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동족대결과 반인민적 악정만을 일삼아 온

《탄핵》을 불러오는 《핵탄》

최근 남조선에서 여론의 집중속에 흑막속에 가리워져있던 최순실과 박근혜와의 밀착관계가 사실로 하나둘 판명되고있다.

그 폭로속에 박근혜 《정권》의 저렬성과 파렴치성, 추악성이 적라라하게 드러나 《최순실게이트》는 일개 부정부패사건으로부터 박근혜의 《탄핵》을 부르는 《핵탄》으로 되었다.

기언가미언가 하던 박근혜—최순실관계를 폭로한것은 《중앙일보》 소속의 JTBC보도였다.

그 내용이 어떤것이기에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되었는가.

JTBC는 처음에 최순실이 박근혜의 연설문들을 수정, 가필해준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금까지 박근혜의 《시정연설》이니, 《기념사》이니 하는 연설문들은 수일내지 십여일이전부터 최순실에게 내려와 그의 검열을 받고 수정되어 박근혜에게로 되돌아갔다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앞에서 떠돌아댄 박근혜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민행복시대》, 《창조경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돕는다》, 《통일대박》 등의 화려한 미사리구들은 목소리만 박근혜일 뿐 그 내용은 최순실의 컴퓨터에서 나왔고 그 녀자가 불러낸 말들이라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도 지금까지 박근혜의 연설이 아니라 최순실의 연설을 들어왔다고 아연해할 정도이다.

그 정도는 약과이다. 박근혜가 집권자로 당선되었을 직후 이전 집권자인 리명박과 단독으로 나눈 《기밀》내용들도 최순실의 컴퓨터에 기록되어있었고 청와대 비서교체를 비롯한 《인사》문제에도 적극 개입했다는 자료도 있었다.

박근혜가 도이칠란드에서 떠든 《드레즈덴선언》이나 개

성공업지구문제와 같이 첨예한 북남관계와 관련한 문제나 문건들도 최순실이 일일이 봐주었다는것이 확인되었다.

또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의 외교문제에서 박근혜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조언》을 주었고 지어는 박근혜의 옷과 신발, 가방을 마련해주고 해외에 나갔을 때에 어떤 행사때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등의 옷차림규정과 행동규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한다.

통틀어 말하면 일상 정치문제는 물론이고 박근혜가 먹고자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의 손이 닿지 않은것이 없을 정도였다.

남조선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도 대경실색이다.

그들의 말대로 일개 《강남아줌마》에 불과한 민간인녀성

이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외교 등 안 빠진데가 없어 남조선정치는 최순실의 안방에서 좌우지넛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 정치인은 최순실이 군사에게까지 개입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수도 있다고 개탄했다. 박근혜를 《닭머리》, 《닭그네》라고 한 남조선인민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대통령》이란 빈박, 쪽박이고 거기에 담긴 내용은 최순실이다. 박근혜는 남조선을 다스렸지만 그 박근혜를 지배한것은 아무런 직함도 없는 한갓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이었다. 《준비된 녀성대통령》이라던 박근혜는 사실상 최순실에 의해 《준비》되었고 조종되었으며 유지되어온셈이라고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이다. 불과 며칠전까지 《최순실게

이트》에 대해 《이런 비상사기에 란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신공격》이라며 진상조사를 바라는 민심을 공격했던 박근혜였다.

《최순실게이트》를 덮어보려고 집권해서 입박에 내지도 못하게 하던 《개헌》이라는 주제를 돌려보려고 오그랴수까지 써보았다.

비단으로 감싼다고 구린내까지 감출수 없고 자루속의 송곳이야 드러나기마련인 법, 《최순실게이트》의 진상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자 박근혜는 하는 수 없이 《대국민사과》라는것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과》라는것도 1분남짓한 형식상의 《사과》였고 그마저도 《사전록화》한것이 드러나 민심을 경악케 하

고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낮에는 박근혜 (대통령), 밤에는 최순실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에 박근혜 (부통령)》, 《국민이 뽑고 최순실이 쓴 (대통령)》이라고 분노하며 《박근혜탄핵》, 《박근혜하야》를 웨치고있다.

지금껏 박근혜의 《햇바지》, 《방패막이》노릇을 하던 《새누리당》도 박근혜의 탈당과 책임론으로 죽가마죽듯 하고있다.

《민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정치, 권력부터 《민영화》한 박근혜, 《창조경제》를 운운하더니 《수렴청정》을 창조한 박근혜, 그 누구의 《붕괴》니, 《급변사태》를 웨치었지만 몰락의 급변사태에 제가 처하게 된 박근혜이다.

《박근혜탄핵》, 《박근혜하야》를 부른 《최순실게이트》, 남조선 각계가 박근혜 《정권》의 붕괴와 파멸을 부른 《핵탄》이라고 하는것은 우연치 않다.

본사기자 김 현

《붕괴론》을 떠들더니...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상대면 그를 《신령스러운 그 룰레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권력부패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공개되어 사회전체가 충격과 경악으로 죽가마죽처럼 끓고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의 《비밀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대통령》보고용으로 만들어지는 청와대의 각종 문건들도 이 《비밀사무실》에 먼저 제출되어 최순실의 최종검토끝에 청와대의 공식문건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수렴청정, 특종정치만화인것이다.

더우기 황당하고 기막힌 일은 북남군사당국자간 비밀접촉내용과 같은 최대급 비자료들도 이 《비밀사무실》의 탁자우에 올랐고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간 《대북심리전방송》 재개와 개성공업지구전면중단도 최순실의 《지령》에 따른것이며 《통일대박》이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것도 다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의 머리에서 고안되었거나 그에 의해 《비준》된 작품이라는것이다.

제정신없는 선무당년이 《2년내에 북이 붕괴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일토당토않은 주문을 외워

대면 그를 《신령스러운 계시》로 받아들이고 《북급변사태》와 《북체제붕괴》를 넘볼처럼 웨쳐댄 박근혜역도에 의해 조선반도 정세가 최악의 국면에 빠져 든것이야말로 실로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는 입만 벌리면 《북의 붕괴조짐》이니,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체제붕괴는 시간문제》라느니 뭐니 하며 악청을 돋구다 못해 나중에는 《북주민들은 자유러전으로 넘어오라》고 로골적인 《탈북권유》까지 해대었다. 당당히 올라선 공화국,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합되어 날에 날마다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며 만리마속도로 내달는 공화국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웨치는 녀두리였다.

역도년의 이러한 상식밖의 추태를 두고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도 《승승장구하는 북의 현실을 우정 안 보느니 못 보느니 모르겠다》, 《눈먼 장님도 코가 있어 바르소리 하는데 정말 리해 못하겠다》, 《만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박근혜는 맞다고 한다.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무지의 발상인지 누가 알

라》라고 하며 의문을 표시하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통해 세상사람들은 초보적인 주대도, 주견도, 정상적인 사유활동도 없는, 최순실의 손락에서 놀아난 꼭두각시 박근혜의 추악한 전모에 대하여 날날이 알게 되었다.

분노한 민심은 활화산과도 같은 거대한 폭발력으로 《박근혜퇴진》과 《전면수사》, 《(정권) 이양》을 부르짖고있다. 치명적인 《최순실핵폭탄》에 의하여 남조선은 지금 《정치적공황상태》에 놓여있으며 박근혜역적패당은 《숨쉬는 미이라》로 전락되고말았다.

결국 《붕괴》된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선무당년의 결론과 발언에 따라 움직이던 박근혜 《정권》인것이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달려있는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향간의 한 무식쟁이로파에게 결론받아 처리해온 박근혜역적패당은 응당히 온겨레의 비난과 저주속에 통지처참해야 할 민족반역의 무리, 반통일무리이다.

박근혜패당은 저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초래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며칠전 박근혜가 악질검사 출신의 최재경이라는자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박근혜가 지난 기간 자신의 수족노릇을 하면서 온갖 전횡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우병우를 계속 감싸들다가 돌연 내치고 최재경을 올려앉힌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최근 남조선사회를 건잡을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속으로 밀어넣고 만사람을 경악케 한 특대형추문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최재경을 시켜 어물쩍 덮어보려는 데 있다.

최재경으로 말하면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을 하면서 리명박역도의 치명적약점인 《BBK사건》을 무마시켰으며 박근혜를 막후에서 밀어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막역한 선후배관계로서 《박근혜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앞장에서 들추어내고 있는 《조선일보》와도 인맥관계가 있으므로 여론을 눅눅히는데 일련의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이다.

결국 이번에 검찰을 지휘조종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자리에 올라앉은 최재경은 《제2의 우병우》라고 말할수 있으며 그가 있는 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진상은 절대로 검찰수사를 통해 파헤쳐질수

없다. 또 이번 사건의 첫재가는 수사대상인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수사도 최재경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틀고앉아있는 한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진다.

특히 보수패당이 위기에 몰리울 때마다 그를 비호하는데서 《실적》을 쌓았고 지금도 《박근혜호위무사》격으로 높아대고있는 최재경이 배후조종하는 검찰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는지는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과

사형선고는 내려졌다

각계층은 《최재경은 우병우보다 한술 더 뜨는 교활한 인물》, 《검찰수사를 무마하려는 계산된 술책》,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하면서 최재경의 임명을 당장 취소할것을 박근혜에게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한편으로는 추문사건의 공범인 최순실에게 인연이 있는 변호사까지 불러주면서 수사에서 벗어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있다. 현재 최순실의 변호사를 하고있는 리정재는 24년동안 검찰에 근무한 보수적인 변호사로서 박근혜와 불륜관계에 있던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희가 걸려든 2014년의 《정윤희국정개입사건》당시 정윤희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자이다.

최근 리정재는 의도적으로 언론에 자주 나서서 최순실에

책임을 깊이 느끼고있으며 범죄혐의가 있으면 처벌받을 각오도 되어있다는니, 《위법》이라고 하여 다 범죄는 아니라느니, 최순실이 범한 죄행은 《국정통락》이 아닌 일반범죄이며 그 방향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느니, 정치적인 부분은 해명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여론을 기만하고 검찰수사에 로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공화국의 식당녀종업원들을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해놓고 변호인접근마저 완전차단했던 박근혜패당이 전대미문의 특대형범

죄를 저지른 최순실에게는 변호인까지 불러주면서 돌봐주고있다는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박근혜야말로 한조박의 량심도 체면도 없는 인간썩물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알수 있다. 또 변호해야 할 한훈의 가치도 없고 초보적인 인격마저 상실한 패륜악녀인 최순실에게 변호사가 불러다니는것은 남조선이 그야말로 무법지대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이 제아무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갈아맨다, 최순실에게 변호사를 불러준다 어쩌다 하면서 분주탕을 퍼워도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에서 절대로 빠져나갈수 없다. 남조선의 민심은 이미 특대형추문사건의 주범인 박근혜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였다.

최 석 현



박근혜 《정권》의 중국적파멸은 불가피하다

《근혜순실》 호의 침몰은 필연

사상 류례없는 《최순실게이트》로 지금 남조선은 사실상 《권력이 한순간에 증발한 상태》, 류례없는 《정치적공황 상태》에 직면하였다.

박근혜의 《내시집단》으로 지탄받는 《새누리당》은 지금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개 싸움질을 해대는가 하면 《박근혜탈당》과 《당지도부사퇴》, 《최순실특검》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살길을 찾아보겠다고 해담비교있다.

한편 야당들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부리를 들어내고 엄격하게 처벌할것을 강력히 주장해나서고있으며 광범한 사회계가 《박근혜탄핵추진위원회》, 《박근혜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을 조직하고 전면적인 대중투쟁에 돌입하였고 리화녀자대학교를 선두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연일 시국선언이 발표되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박근혜는 순실공화국의 대통령》, 《시일야방성대곡해야 할 사건이다》, 《최순실의 호위무사인 박근혜는 석고 대죄하고 하야하라!》 등 격노한 민심의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진보, 보수 가림없이 모든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갈피를 파헤치는데 뛰어들고있다.

외신들도 남조선에서 《낮대통령은 박근혜, 밤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전대미문의 해피

한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연일 박근혜를 야유조소하고 그 썩은 정치를 혹평해나서고있다.

하여 지금껏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전면부정해온 청와대는 사퇴놀음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박근혜는 《습쉬는 미이라》나 다름없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세계정치사를 돌이켜보면 한 나라, 한 정권을 무너트린 정치체로와 군사정변, 암살과 부정부패 등 중대사태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있지만 박근혜 《정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항간의 한 무식쟁이로파가 《대통령》의 배후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등 모든 영역을 제멋대로 주물러대어 나중에는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빠뜨린 실례는 찾아보기 드물다고 하면서 내의가 이번 최순실 《국정》 통락사건을 두고 국제정치사에서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대형 추문, 박근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 중대사건으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평하였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에서 6.15시대의 거세찬 호를 타고 반미자주, 량북통일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친미보수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미국의 식민지체제도 커다란 위협

에 직면하였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몰락하는 보수세력내에서 더이상 적임자를 고를수가 없어 내세워진 인물, 남조선인민들을 현혹케 하는 선거공약들을 내놓고 온갖 감언리설로 민심을 우롱한자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대통령》 선거결과를 두고 박근혜를 당선시킨 요인중 99%가 미국의 조종과 애비 박정희의 후광이라고 평하였다.

권력은 타고났으나 정치능력이나 수완이 부족할대로 부족한 박근혜의 그 압둔한 머리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렇다고 뻔드러운 실력을 아무에게나 드러내보일수도 없는 그로서는 권력유지를 위한 비상수단으로 최순실과 같은 선무당의 《신통력》에 매달릴수 밖에 없었을것이다.

오늘 남조선에 들이닥친 비극적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피할수 없는 운명으로서 오래동안 권력을 독점하고 온갖 전횡을 서슴지 않아온 남조선의 보수세력의 총체적붕괴를 의미한다는것이 세계정치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반파쇼민주화투쟁의 자랑찬 전통을 가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인민적약정과 동족대결, 친미사대에 미쳐달라며 겨레의 머리에 온갖 재앙을 불러오려는 박근혜일당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최근 남조선에서 특대형권력부패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져 사회전반이 충격과 경악으로 죽가마뽀듯하고있다. 하루밤 자고나면 새라 새로운 사실들이 련속 드러나 청와대를 강타하는 무서운 정치태풍으로 되고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들과 각종 항의투쟁들이 매일 벌어지고있는가운데 이제는 박근혜를 버티어온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3각축마저 송두리채 흔들리고있다. 지금의 상태를 두고 외신들은 남조선이 무당들에게 빠졌다며 조롱하고있는 형편이다.

흔히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정치하에서 권력자와 내통한자들이 존재하고 그를 둘러싼 각종 정치추문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아무런 공식적합도 없는 한 아낙네가 《대통령》의 혼신을 지배하면서 판직임명으로부터 주요정책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것은 그야말로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 정치추문사건이다.

하다면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며 막후에서 조종해온 최순실은 과연 누구인가.

그는 박근혜가 신처럼 떠받들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온 사이비목사 최태민의 딸로서

최태민에게 혼맹이가 나간 박근혜는 제 애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각종 부정부패들을 다 저지르고 추잡한 치정판계까지 거리낌없이 맺게 되었다.

원래 최태민은 일제강점시기 순사로 복무한 악질친일분자였으며 해방후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1970년대초 불교와 그리스도교, 천도교를 뒤섞은 그 무슨 《령세교》라는 사이비종교를 만들어내고 《조물주가 보낸 칙사》로 자처하며 《주문을 외우면 병이 낫는다.》는 따위의 거

최태민에게 혼맹이가 나간 박근혜는 제 애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각종 부정부패들을 다 저지르고 추잡한 치정판계까지 거리낌없이 맺게 되었다.

최순실은 이런 최태민의 다섯번째딸로서 그가 저세상으로 간 후에는 이른바 《령적능력》을 물려받았다고 자처하면서 박근혜의 《정신적지주》, 《모사》가 되어 그를 막후에서 조종하는 《비선실세》로 지금까지 암약해온 인물이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박근혜가 밥도 그 손에서 먹고 옷도 그가 입혀주는데 따라 입었으며 언행도 그가 써주는데 따라 하는 하나의 인형에 불과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에게 있어서 최순실은 보통 《친구》나 《벗》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이고 《하느님》과 같은 존재였다. 이처럼 사이비종교인, 선무당인 최순실이 권력을 틀어쥐고 모든것을 좌우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남조선에 펼쳐져온것이다.

하기에 이를 두고 남조선사람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까지도 남조선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원시종교, 즉 무당이 어떤 무엇인든지 성취될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지배되는 《무당통치국》이나 다를바 없다고 평가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본사기자 박철남

원시사회를 방불케 하는 기이한 풍경

짓말을 거리낌없이 채치면서 돌아치고 이름은 일곱번이나 바꾼 사기협잡의 왕조였다. 그는 너편네를 여섯번이나 갈아맨 회대의 호색광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박근혜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것은 박근혜의 애미 류영수가 사살된 시점이라고 한다.

1977년 미의회 하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꿈에 죽은 류영수가 나타나 딸을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최태민의 편지를 받고 박근혜가 그를 청와대로 불렀는데 제 애미의 령혼이 옮겨진듯이 표정과 음성을 그대로 재현하는것을 보고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최태민이 박근혜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고 밝혀져있다. 이렇게 되어 나이차이가 40년이나 되고 한갓 사기협잡군에 불과한

입혀주는데 따라 입었으며 언행도 그가 써주는데 따라 하는 하나의 인형에 불과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에게 있어서 최순실은 보통 《친구》나 《벗》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이고 《하느님》과 같은 존재였다. 이처럼 사이비종교인, 선무당인 최순실이 권력을 틀어쥐고 모든것을 좌우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남조선에 펼쳐져온것이다.

하기에 이를 두고 남조선사람들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까지도 남조선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원시종교, 즉 무당이 어떤 무엇인든지 성취될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지배되는 《무당통치국》이나 다를바 없다고 평가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본사기자 박철남

누구나 기니스기록집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웠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했다고 보기에 믿기 어려운 회한한 일들, 이전의 기록을 돌파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운 자료들을 수록하는 책으로 알고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집의 주인 공이 되기 위해 정신육체적인 극한점을 이겨내고있으며 지어는 생명을 내던 아슬아슬한 죽음의 무대에서 숨없이 나서고있다. 이로 하여 기니스기록집은 세인들의 관심사로 되었으며 최근에는 사람들의 심장을 조이고 회한함과 황홀감을 자아내는 세계기니스기록기대회까지 열리고있다.

그런데 너절하고 추한 행성, 사고력과 판단력에서 저능아의 최저수준에서 만점을 받은 미친병자, 부정부패기록선수권보유자가 있다. 다름아닌 남조선의 현 집권자이다.

동족으로부터 온갖 추악한 오명들을 선사받은 인간오작품인 박근혜는

지금 자기가 세운 오명기록들을 련이어 돌파하며 미친개마냥 줄달음치고있다.

《대통령》 병거지를 쓴 때로부터 쌓이기 시작한 박근혜의 오명기록은 오늘까지 하늘높은줄 모르고 더욱 치솟고있다. 온갖 사기와 협잡, 민심기

《발끈해》, 《바꾸네》, 《늬운 마귀》... 이것도 모자라 세계를 싸다니며 《대북제재공조》를 청탁하고 미국상전의 사라구니에 기여하며 민족의 머리에 핵참화를 들씌워달라고 구걸하는 박근혜의 더러운 꼴에 침을 뱉으며 사람들은 《창녀》, 《정치매춘부》, 《청와대암개》, 《늬다리미친개》, 《극악한 동족대결광》, 《대결악녀》 등 셀수 없을 정도로 계관한 칭호를 더해 주었다. 게다가 머리가 암둔하여 《닭그네》, 《닭대가리》, 《저능아》, 행실이 바르지 못해 《깨끈해》, 《미친 요귀》, 아기도 못 낳아본 《폐닭》, 써준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해 《수첩공주》, 《메모공주》, 《칠퐁이》... 정말 받아안은 오명을 다 세여보자고 하면 머리가 회여질 정도이다.

최근 국제정치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순실 《국정》 통락사건으로 하여 아수라장이 된 남조선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박근혜에게는 수많은 오명들이 나붙고있다.

야당과 각계는 물론이고 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속에서도 변변치 못한 박근혜에 대해 《습쉬는 미이라》라는 비난을 퍼쳐놓아 치욕의 오명들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런 추악한 몰골을 해가지고도 박근혜는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교활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마지막몸부림을 치고있다. 오늘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의 수치, 력사의 오물실이 바르지 못해 《깨끈해》, 《미친 요귀》, 아기도 못 낳아본 《폐닭》, 써준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해 《수첩공주》, 《메모공주》, 《칠퐁이》... 정말 받아안은 오명을 다 세여보자고 하면 머리가 회여질 정도이다.

최근 국제정치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통할수 없는 《짜맛추기식》 수사놀음

지금 남조선은 특대형 권력부패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하여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 있다.

수천수만의 초보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박근혜퇴진》과 《전면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조선전역을 뒤흔들고있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검찰이 이러한 민심에 역행하여 《짜맛추기식》 수사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검찰은 최순실이 해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까지 한 이후에도 소재를 파악할수 없다고 뻔뻔하며 그가 서울에 돌아오는 즉시 구속하지 않고 무려 30여시간동안이나 방치해두어 증거를 없애버릴수 있게 짜맛추기를 할 시간적여유를 주는 놀음을 하였다. 그런가하면 최순실이 검찰에 출두할 때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였는가 하면 조사과정에도

그가 요구하는대로 고기국까지 먹이며 《귀빈대우》를 하는 추태까지 부러웠다. 지어 언론이 폭로한 《최순실의 아들부패의혹》에 대해서도 최순실에게 따져보이니 아들이 없다고 하였다느니, 의혹이 가셔졌다느니 하며 별써부터 사건을 여론과는 다르다는것을 《립증》하는테로 몰아가고있다.

주요하게는 이번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상부에도 일체 보고하지 않도록 특혜를 준것이다. 이로하여 수사과정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이 원천봉쇄되게 되었으며 검찰은 이 공간에서 마음놓고 통간질을 할수 있게 되었다.

남조선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힘을 얻은 청와대것들은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대가리를 쳐들고 《근거없는 의혹들이 대량생산되었다.》느니, 《검찰수사가 진행중인것

만큼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랭정해달라.》느니 뭐니 하며 흰소리까지 치고있는 정도이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 검찰이야말로 권력의 시녀, 청와대의 심복줄개무리라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짜맛추기식 수사놀음을 민중의 밝은 눈으로 밝혀내겠다.》, 《지켜보겠다. 심판하겠다.》, 《경고한다. 민의에 편승하라.》 등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중립》과 《공정성》을 운운하는 남조선 검찰이 이미 산송장이 된 박근혜역도의 더러운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짜맛추기식》수사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해서 넘기려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언젠나 진리이다.

리어금



박근혜는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사퇴하라

남조선의 범국민투쟁단체들 최후통첩, 만고역적심판을 위한 다양한 투쟁 힘있게 전개,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를 공격, 《정권》 마비상대

보도들에 의하면 4.16련대와 백남기투쟁본부,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 민주주의국민행동, 진보련대 등 29개 범국민투쟁단체들로 구성된 《11.12 박근혜퇴진촉구 시민대행진 추진위원회》가 1일 청와대앞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역도에 대한 최후통첩을 발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최후통첩에서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더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선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현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의 근원인 박근혜는 오는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라》고 하면서 단체는 박근혜가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범국민적 《정권》 퇴진투쟁으로 기어이 불법 《정권》을 끌어내릴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단체는 경악스러운 국정문란범죄의 공범자인 《새누리당》에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범죄에 관련된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며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방조를 제 공한 책임을 지고 정계는 퇴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은 즉각 자진해체하라고 단체는 요구하였다. 단체는 11월 12일 정오

를 기한 범국민행동으로 서교회와 성당, 절들을 포함한 전지역의 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를 념원하는 경종을 울려 박근혜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적의지를 과시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시작되는 《박근혜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에 모두가 참가하여 오만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에 대한 분노를 총폭발시킬것을 단체는 제안하였다. 아울러 전지역의 주요도시와 지역에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거리행진, 《새누리당》 항의방문을 힘차게 전개할것과 거리와 학교, 직장들에서 박근혜퇴진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릴것을 단체는 호소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국민행동 공동대표,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 《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자기 혼자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서 1987년의 6월인민항쟁때처럼 《광화문에 다시한번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뜨거운 열기로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그 즉시 끌어내리자》고 열변을 터치었다. 한편 올해를 박근혜 《정권》 심판의 해로 만들 의지밑에 2016년중총궐기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50여개의 단체들이 1일 서울의 청계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국통성에 돌입하였다. * * *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박근혜심판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1일과 2일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강원대학교 교수들은 시국선언문들에서 박근혜 《정권》이 전기간 총체적으로 무능하였으며 리운은 재벌에게, 손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앞서 한신대학교의 학생들과 졸업생, 교직원들은 공동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권》의 행태는 남조선의 자주, 민주를 위해 퍼홀러 싸운 수많은 렬사들에 대한 씻을수 없는 모욕이라고 항의하였다. 남조선 전지역의 각계층 단체들이 초불투쟁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였다. 대전에서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호대전운동본부가 《내려오라 박근혜, 대전시민 초불행동》을 개최하였다. 10월 31일 하루동안에만도 언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 남조선강원도의 6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 충청북도 제천시역의 11개 단체로 구성된 제천시국초불공동행동, 전라남도 261개 단체들을 비롯하여 전지역에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 단체들의 기자회견들이 진행되었다. 로동인권실현을 위한 로무사모임은 선언문을 통해 리해하기 어려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로동, 물상식, 미치광이같은 독선과 불통의 정치뒤에 어치구니 없게도 미친 국판이 있었다고 격분을 터쳤다. 청년당 추진위원회도 일개 무당이 사회를 좌지우지한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하면서 더이상 무당에게 사회를 맡길수 없으며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당장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고 청와대를 인수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이 지역의 32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회의를 통해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박근혜퇴진 선포의 날》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4.16가족협의회는 수사 권력을 쥐고있는 박근혜집권세력이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은 밝혀낼수 없다고 하면서 현사태가 《세월》호참사와 련결되어있다는 의혹을 날날이 밝혀내야 할것이라고 표명하였다. 한편 로동운동단체들은 박근혜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리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서울의 《정권》 종합청사앞에서 시국통성에 돌입하였다. 금용로로는 18일로 예정되었던 2차총파업을 미루고 박근혜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종교인들과 로인들도 각계층의 반박근혜투쟁에 합세하였다. 불교단체공동행동과 기독교장로회가 국민의 참담함과 절망이 깊어지게 한 사태의 궁극적책임은 여당과 보수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였다. 로년유니온, 로후회망유니온 등 로인단체들이 청와대주변에 모여 《국민에게 사과까지 해놓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박근혜대통령은 또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고 하면서 하루빨리 물러나고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급기야 박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여겨지던 보수로년층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사건의 심각성에 당혹하고 박대통령의 오지부동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서고있다.》, 《국민상당수가 대통령이 퇴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한편 야당세력의 공세도 한층 강화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진상규명 국민보고회를 가지었다. 참가자들은 이어 《국회》청사앞으로 이동하여 박근혜가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자기에 대한 조사를 선언할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나 《최순실게이트》를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 의혹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실시 등 차후행동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다. 2일 박근혜역도가 새 《총리》를 내정하는 등 부분적인 개각을 단행한데 대해 야당들은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고수하겠다는 술책으로 락인하고 개각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일제히 거부해나섰다. 야당들은 박근혜가 민심을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강경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첫 거리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있다.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 사전통보없이 개각을 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한 분노는 《더 큰 동기》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서울시장도 일방적으로 개각명단을 발표한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단죄하였다. 그는 경제위기, 민생도란, 남북관계위기 등을 《식물대통령》에게 맡겨둘수 없으며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바꾸는것으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CBS》방송은 2일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게이트》에 의한 초대형태풍으로 어느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고 야유하였다. 박근혜를 버려온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3각축도 송두리채 흔들리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있으며 외신들은 남조선이 무당들에게 빠져들며 조롱하고있다고 방송은 개탄하였다. 이제는 청와대에 들어 박혀있는 《대통령》도 혼자,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도 혼자이고 《대통령》의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도 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방송은 지금은 내각마저 비상체제로 들어가 사실상 국정이 전면정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박근혜퇴진을 위한 남조선 각계의 투쟁이 보다 대중화, 조직화, 적극화되면서 바야흐로 중대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 박 제 품 》

《문고리 3인방이 생살이라면 최순실은 오장육부》, 이 말은 남조선에서 특대형권력 부패사건인 《최순실게이트》가 확대되기 전부터 나온 소리이다.

다시 음미해보면 집권자 박근혜는 껍데기뿐, 즉 《박제된 대통령》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 《밤의 대통령》,

미신에 넣을 잃은 《미이라》

넋이라는 말은 정신과 마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넋이 없는, 넋을 잃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에 게 넋을 빼앗긴 박근혜가 그런 인물이다.

남조선언론이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는 이미 1970년대에 불교와 그리스도교, 천도교를 뒤섞은 《경세교》라는 사이비종교의 교주였던 최태민을 《신령스러운 존재》, 《정신적지주》로 여기고 그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고 한다.

그러니 《구국봉사단》, 《새마음운동》, 《육영재단》 등 박근혜가 등장한 모든 것이 최태민이라는 사이비종교, 미신덩어리에 의해 조종되었고 박근혜는 《형식상 존재》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최태민이 죽은 후에는 최태민의 《령적능력》을 물려받았다는 딸 최순실에 의해 박근혜의 혼이 지배당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만 보아도 그렇다.

당시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에

《박근혜의 오장육부》, 《박근혜의 혼을 지배하는 무당》이라는 최순실의 《국정》통단의 면모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박제된 대통령》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게 한다.

와서 보면 그 《새로운 세상》이란 다음아닌 최태민과 최순실의 《교리》가 실현되는 세상이었다.

박근혜의 공약중의 하나인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도 《최태민,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박근혜의 《대선본부》를 뒤에서 조종한 것도 최순실이었다고 《대통령》 취임식장도 《오방낭》이라는 최순실의 미신

최순실의 걸작—《박제대통령》

박제품은 짐승이나 새의 가죽을 고스란히 벗겨 만든 표본을 말한다.

겉모양은 신통하나 그저 형체뿐이다.

명색만 있고 허울뿐인 《대통령》인 박근혜가 어찌 보면 박제품과 류사하지 않은가.

박근혜의 모든 정치는 최순실의 《비밀사무실》에서 조종되어왔다고 한다.

《대통령》의 문건들은 최순실의 《비밀사무실》에 먼저 제출되고 최종검토를 받아 박근혜에게 돌아간 것들이라고 한다.

판직임명으로부터 주요정책이라는데까지 최순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

적발상으로 장식되고 진행된 곳판이었다고 한다.

《대통령》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의 입에서 나온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녀원》, 《하늘의 응답》,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혼이 없는 인간》 등의 발언들도 다 《평세교》의 허황한 주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적극 밀어준 미르—K스포츠재단도 권력하면 최태민이 즐겨 사용하던 《미르》이 된다고 한다.

일개 무당에 불과한 최태민이나 무너진 최순실에게 혼을 지배당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타락, 몽매해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신에 넣을 잃은 《숨쉬는 미이라》였다.

박근혜가 적극 밀어준 미르—K스포츠재단도 권력하면 최태민이 즐겨 사용하던 《미르》이 된다고 한다.

이대 무당에 불과한 최태민이나 무너진 최순실에게 혼을 지배당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타락, 몽매해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신에 넣을 잃은 《숨쉬는 미이라》였다.

최순실의 말은 그대로 박근혜라는 《앵무새》가 되받아 외운다.

최순실이 《2년내에 북이 붕괴된다》고 하면 박근혜는 《북침변사태》, 《북체제 붕괴》를 고아대고 최순실이 《위안부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큰 틀에서》라고 하면 박근혜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일본군성노예범죄도 무마해준다.

최순실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박근혜라는 《꼭두각시》가 따라간다.

정치를 가리키면 《국회》도 《식물국회》로 되고 경제를 가리키면 《창조경제》, 《경

제개혁》이 강행되고 체육문화화 가리키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쿠데타식으로 생겨나고...

최순실이 가꾸어주는 대로 박근혜는 《모델》노릇을 한다. 이 옷을 입어라, 저 신을 신어라, 그 가방을 들라, 하루에도 몇번씩 칠면조처럼 변하는 박근혜의 외모도 최순실의 작품이라고 한다.

그렇게 박근혜는 《대통령》노릇을 해왔다.

《대통령》박근혜는 껍데기이고 그속에는 《오장육부》최순실이 들어있었다.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헬조선》, 《망한민국》, 《개한민국》, 인민들의 삶은 껍데기뿐이었다.

1 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리고 《경제개혁》의 재벌 《정책》에 몰려우고 허울뿐인 《청년고용》에 청춘이 허무해지고 빛갈뿐인 《복지정책》에 아이들과 녀성들, 늙은이들이 도외시되고있다.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가슴기살균제참사, 백남기 농민사망, 지진피해 등이 보여 주듯이 남조선인민들은 《국민안전시대》가 아니라 《국민살해시대》, 《국민학살시대》에서 죽지 못해 살아간다.

《내 꿈은 생존》,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조선인민들은 생을 가꾸고 누리는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있을뿐이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사건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참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바편에》라고 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대통령〉은 최순실,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부통령〉은 박근혜》라고 비난하듯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강남아나네》인지 모를 정도로 되었으니 《바편에》가 분명하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앵무새》, 《꼭두각시》, 《웃모텔》노릇이나 할바에야 누가 한들 못하겠는가.

최순실의 걸작—박근혜는 가히 박제된 인간, 박제된 《대통령》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참았던 분노는 드디어 터져 나왔다.

《애비는 유신, 정치는 배신, 경제는 등신, 외교는 망신, 연설은 순실집신, 책임은 대신, 옷갈아입는데는 귀신, 물대포는 캡사이신, 미국엔 굶신, 국민은 실신》, 《나와라 최순실, 하야하라 박근혜》,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 《청와대로 가자》...

박근혜가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였지만 분노한 민심은 스스로 하나로 뭉쳤다.

《모이자! 몽치자! 내려와라 박근혜》, 거대한 들불로 타오른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회색의 미물인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썩을대로 썩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야말 것이다.

《박제품》—박근혜는 력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위기탈출을 꾀하는 가소로운 추태

지난 1일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자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과 함께 판도에게 날아가 《북이 핵개발을 지속해서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화약내나는 폭언을 늘어놓았다. 이 자는 지난달 27일에도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다니며 그 누구의 《도발》이니, 《현장중결》이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군부호전광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2016년 호국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으며 《2016년 대침투종합훈련》, 《2016년 하반기 침투훈련》 등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

는 온 겨레의 녀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파멸의 낭떠러지우에 서있는 저들의 구차한 목숨을 군사적도발로 건져보려는 가소로운 추태이다.

지금 박근혜당은 집권기간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 인민들의 저주와 규란을 받고있다. 일개 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를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취락편락하면서 《국정》을 통단하고 자기 리속을 차리며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긁어모았다는 사실에 남조선인민들은 경악하고있다. 하여 지금 남조선의 곳곳에서는 야당들과 층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여 매일같이 시위와 집회를 벌리고있으며 당국의 통치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사회전반이 일대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때에 북침전쟁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은 군사적도발로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를 만데로 돌리고 파국상태에서 벗어나보려는 속이 뻥치 들어다보이는 서푼짜리 술수인것이다.

그러나 수십번도 더 우려먹은 그런 상투적수법이 이 밝은 세상에서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남조선의 민심은 이미 만고역적무리인 박근혜당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었다.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오히려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적개심을 폭발시켜 저들의 파멸을 더욱 앞당기는 촉진제밖에 달리 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이 단순한 리치조차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기 그지없는 군사적도발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제 죽을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일명 《최순실게이트》라고 하는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이 리저 정계를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경쟁적으로 매달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추문들을 계속 들추어내어 대서특필하고있고 인터넷들에는 격노한 민심을 담은 《박근혜탄핵》, 《박근혜하야》 주장들이 차고 넘쳐 사회적으로 주되는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안에서도 현 《정부》의 사퇴와 박근혜의 탈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까지도 련일 박근혜를 야유조소하고 남조선의 썩은 정치를 혹평하는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현 남조선집권자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이처럼 몸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서리맛은 호

박익신세가 된 현 집권자에게 《새누리당》내에서 도 등을 돌려대고있는 이때 아직도 박근혜를 적극 비호두둔해나서며 객기를 부리는 열간망둥이가 있다.

바로 《새누리당》대표 리정현이다.

지난 10월 25일 리정현은 《나도 연설문을 작성하기전 친구 등 지인에게 물어보고 쓴다》고 하여 《박근혜탄핵》, 《박근혜하야》 주장들이 차고 넘쳐 사회적으로 주되는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안에서도 현 《정부》의 사퇴와 박근혜의 탈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까지도 련일 박근혜를 야유조소하고 남조선의 썩은 정치를 혹평하는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현 남조선집권자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이처럼 몸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서리맛은 호

확신한다.》느니, 《탈북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박근혜가 체첸엔 망발을 그대로 외워왔는가 하면 《현 〈정부〉에 들어와 체제전복세력, 국기문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였기때문에 〈중복세력〉들이 점차 꺾이고있다.》느니, 《박근혜 〈대통령〉은 북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느니 뭐니 하며 대결에 환장한 역도년들을 벌렸던 리정현이 불과 7일만에 제 먼저 《백기투항》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꼴이 되어 사람들을 되게 웃기였다. 명색이 여당대표라 리정현이 체첸이 되고 다 체버리고 비굴하게 돌아오는 꼴을 보면 흡사 창녀에게 혼을 다 빼운 남편자식을 보는듯하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내에서까지 《낮이 뜨거워 못 보겠다》,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는데 온 신심이 가있다.》, 《리정현대표는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터져나왔겠는가.

보수꼴통분자들마저 이제 지켜볼것도 없는 박근혜와 거리두기를 하고있는데 아직도 늙은 마귀의 귀귀한 치마자락에 더 감겨들려고 하는 리정현이야말로 추물중의 상추물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박근혜치마폭을 놓지 못하겠으면 저승길로 가고있는 역도년과 운명을 같이할수밖에

정 일혁



《박근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로씨야의 한 대학교수가 최근 신문 《폼메르산트》와의 회견에서 박근혜역도가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조선사회에서 현재 《최순실게이트》가 최대 쟁점으로 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박근혜라고 하면서 그가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하

고 조사를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박근혜가 보잘것없는 무당의 예언에 의지하여 그동안 많은 대외정책들을 단독으로 처리해왔으며 북조선에 대한 비난전선을 적극 벌렸다고 비난하였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도 박근혜가 추진한 많은 결정들은 리해하기 힘들었

으며 박근혜는 전문가들과의 논의없이 면사포에 가리운채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교수는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남조선의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멸만을 재촉하는 제재소동

미국과 박근혜당이 거덜이 날대로 난 반공화국제재의 북통을 계속 두드려대고있다. 《북이 고통을 느낄 때까지》, 《평양이 전략적선택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새로운 초강도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꾀변들이 터져나오고있는가 하면 이제 얼마 안있어 물러나게 될 미행정부가 실행중에 있는 유엔 《제재결의》들의 《구명》을 예우기 위한 제재조항들을 새로 보충하는 것을 비롯하여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며 소란을 피워대고있다.

미국의 한갓 꼭두각시에 불과한 박근혜당역시 이에 적극 맞장구를 치는 한편 저들대로의 《구명》을 대북제재니, 국제적인 《제재공조추진》이니 하면서 가소롭게 늘어대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제재》니, 《관공제재》니, 《도덕적제재》니, 《스포츠제재》니 하는 따위의 추악하기 그지없는 제재방안들까지 고안되고 그 무슨 《3국제재》를 통한 압박 《시범》이라는 것까지 연출되고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박근혜당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제재소동이 마치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인듯이 광고해대고 지어는 공화국이 《이번에는 절대로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있다.

아마도 적대세력들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모양인데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껏 가해진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이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것은 물론 도리어 공화국의 초강경대응만을 불러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년간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착한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공화국은 자위의 핵억제력을 비상강화하면서 날이 승승장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초강도제재》니, 《끝장제재》니 하면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더욱 기를 쓰고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에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손발을 들지 않으면 안되도록 몰아가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미국

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타협하거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 그런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 전체 인민이 자주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뜻과 혈연의 정으로 일심단결되어있는 나라, 그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과 지혜,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이룩해나가는 자력자강이 차넘치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상대에 대한 극도의 무지에서 출발한 반공화국제재소동이 결코 성공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박근혜당이 떠드는 그 무슨 《선제타격》이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또 공화국은 그것을 실지 행동으로 옮길수 있는 충분한 담력과 배짱, 능력을 가지고있다.

결국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과 박근혜당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은 도리어 자멸을 재촉하는 길로 될뿐이다.

승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공화국의 편에 있다.

김연희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청와대에서 열린 《안전보장회의》라는데서 《북핵,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것은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사협력을 동맹수준으로 끌어올려 조선훈동에 대한 《자위대》의 진출과 군사행동을 보장하겠다는 극히 매국적이며 위험한 행위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협정》체결문제는 이미 4년전에 극악한 매국노인 리명박이 추진시키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집어던진 력사의 오물이다.

바로 이러한 오물을 현 집권자가 다시 꺼내들고 실행시키려고 하고있다. 무엇때문인가.

현시기 비약적으로 강해지는 공화국의 핵억력 앞에 겁을 먹은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쥐기 위한 3각군사동맹을 하루빨리 실현하려고 저들의 손발인 일본과 남조선을 마구 달구어대고있다.

남조선과 미국, 미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적동맹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속에 미지수로 남은것이 바로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군사동맹이다.

바로 그때문에 상전의

요구라면 고양이뽀이라도 섬겨바칠 친미주구인 현 집권자로서는 미상전의 요구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겨레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일본과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그 선상에서 《일본군위안부지원》을 위한 《화해,

죽가마궤듯 하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정치가 《대통령》이 아닌 일개 민간인녀자에 의해 좌우되여왔다는 사실은 세상에 없는 희비극으로서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으며 이런 허수아비 《정권》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핵

인자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가보다. 지금 《협정》협상재개 놀음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12.28합의〉로 국민의 분노가 여전한데도 왜 이런것을 추진하는지 알수 없다.》, 《최순실사건을 덮기 위한것 아니냐.》, 《30년간 일본의 군화발에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희생당했는데 군사정보에 있어 손을 잡는다니 존용 남할수 없다.》,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 저지하겠다.》며 현 집권세력의 매국적인 처사에 강하게 항거해나서고있다.

결국 일석이조를 노리고 던진 돌이 제 목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여 현 집권자를 향해 날아오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정의를 짓밟고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가 받는 응당한 대가이다.

황금철

죽어가면서도 친일을 한다

치유재단》설립놀음까지 벌려놓은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백년속적 일본의 과거범죄를 눈감아주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려는것은 일본의 재침야망을 부채질해주는 용납할수 없는 매국매족행위이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지금 남조선은 현 집권자의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인 최순실사건으로 하여

위협》을 걸고들며 부디 매국적인 《협정》협상재개놀음을 벌린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기에게로 몰아치는 비난의 물결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이라는 돌을 던지고 국내여론의 반발을 애국가 상전의 요구대로 매국적인 《협정》체결을 어물쩍해버리자는데 있다.

다산 정치충장이 된 신세에도 매국 《협정》체결에 집요하게 매달리는것을 보면 친일매국의 유전

을 보면 친일매국의 유전



미국이 남조선에 준것은(4)

평화가 아니라 참혹한 전쟁위험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주되는 목적은 남조선을 저들의 세계제야망실현을 위한 교두보로, 군사기지로 만들자는데 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이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범죄적야망을 품고있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미국동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나는 항상 조선을 무한한 가치기 있는 군사적전초기지로 인정하였다.》라고 로골적으로 떠벌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미국은 강점초기부터 남조선을 평화적발전의 길로 떠민것이 아니라 저들의 군사전략기지로 만드는데 달라붙었다.

강점초기기에 벌써 립진강일대로부터 동두천, 춘천, 동해안에 이르는 중요지역에 반영구적군사시설이 구축되었고 38° 선 전 구간에 걸쳐 전호 및 참호들이 굴설된 사실들은 미국의 북침전쟁준비로 말해지고있었음을 말해주고있다.

또한 미국은 남조선의 수많은 청장년들을 괴뢰군에 강제징집시켜 값싼 식민지고용군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준비말에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리승만당을 사측하여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으며 하여 삼천리조국강도

는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 미제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 밑에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인민과 영웅적인민군대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후에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탄복하게 위반하면서 온 남조선땅을 저들의 군사적목적과 침략전쟁정책에 복종시키는 군사기지화책동에 대대적으로 매여달렸다.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공공연히 규정한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이른바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고 로골적으로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앉아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1955년 7월에는 일본 도표에 있던 미8군사령부를 그리고 1957년 7월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각각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새로운 북침전쟁을 위한 공격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 무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한편 정전후부터 1955년 8월까지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남조선군을 정전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일약 현역 31개 사단, 예비역 10개 사단으로 증강편성하고 현대적인 작전장비들을 남조선군에 제공하였다.

특히는 1958년 1월 29일

《오네스트존》 핵미싸일과 280mm곡사포 및 8in곡사포로 발사할수 있는 핵포탄들을 끌어들이고 남조선으로 쏘아대고있다.

올해에만도 미국은 핵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의 긴장을 전쟁접경으로 몰아갔다.

최근에는 사대매국노인 현 집권자를 부추겨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싸드》배치를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저들의 평화와 안정도 엄중히 해치고있다. 남조선이 미국의 《싸드》때문에 대국들의 대결과 싸움마당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언제 국적불명의 핵탄이 날아올지 모를 항시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자라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0년이 넘는 기간간 세월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한번 평화가 깃들든지 없었는지 전쟁위험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평화가 아니라 참혹한 전쟁위험, 이것이 바로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며 기여든 미국이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겨레에게 들씌운 또 하나의 엄중한 재난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가상훈련, 모의훈련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류와 형식의 훈련들과 연습들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올해에만도 미국은 핵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의 긴장을 전쟁접경으로 몰아갔다.

최근에는 사대매국노인 현 집권자를 부추겨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싸드》배치를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저들의 평화와 안정도 엄중히 해치고있다. 남조선이 미국의 《싸드》때문에 대국들의 대결과 싸움마당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언제 국적불명의 핵탄이 날아올지 모를 항시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자라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0년이 넘는 기간간 세월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한번 평화가 깃들든지 없었는지 전쟁위험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평화가 아니라 참혹한 전쟁위험, 이것이 바로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며 기여든 미국이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겨레에게 들씌운 또 하나의 엄중한 재난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병진의 기치높이 핵강국,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공화국은 과학기술과 자력자강으로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있다. 가는 곳마다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생산적양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문화건설분야에서도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있다.

그러나 한지맥으로 이어진 남조선에서는 지금 경제위기가 날로 심화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논문에서 경제활동의 기본요소인 인구의 감소와 세계경제와의 경쟁력부족, 지속적인 소비위축 등 현 상태로서는 남조선경제의 성장에 대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권》하에서 년평균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져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말 파산에 직면한 대기업들은 54개로서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고 자체의 영업리익으로 리자도 갚지 못하는 대기업은 567개나 되며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2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

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었다.

현재 남조선의 《국가채무》는 역대 최고인 1조 1 700억US\$로 치솟고있으며 3년전 대비 30% 늘어났다. 1조 2 000억US\$에 달하고있다.

또한 주변나라들의 경제악화영향으로 수출액은 해마다 10%이상 줄어들어 수출에 의존하는 남조선경제의 명줄을 사정없이 조이고있다.

남조선에서 극도로 악화된 경제파국은 가뜩이나 어려운 인민들의 생계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기업들의 연쇄적인 파산, 몰락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전체 실업자는 3년전에 비해 23.3%나 늘어난 450여만명에 이르렀고 반실업자는 무려 1 000만명,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있다.

치료비와 보육비, 대학등록금 등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어들고 사람들은 각종 재정부담에 짓눌려 숨조차 쉴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으며 수많은 기업체들과 가정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최저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은 570여만명에 도달하였고 로인빈곤률은 48.6%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남조선에서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는 속도에 인민들은 년간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뜯기우고있다.

그리고 850여만세대가

세방이나 쪽방, 판자집, 움막 등에서 살고있으며 이를 두고 언론들은 《전세대란》, 《주택대란》으로 부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최악의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은 경제무능자인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을 차지한 결과에 비롯된것이다.

이른바 《창조경제》니, 《경제민주화》니 하며 갖은 감언리설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권력을 차지한 박근혜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과 다른 나라와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 무모한 《경기부양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현 집권자는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인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폐쇄함으로써 이곳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120여개 기업과 6 000여개의 관련기업들을 파산의 위기에 몰아넣고 여기에 종사하던 12만 4 0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시켰다.

더우기 이것이 《북붕괴》망상실현에 날뛴 박근혜에 의해 산생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높이 웨치며 반역 《정권》라도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경제를 파국에 몰아넣고 민생을 도란에 빠뜨린 박근혜는 그 최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어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